



“특수교육센터 내부유보금 171억 감액 멋대로”

■ 오늘 스승의 날... 교육 공로자 132명 표창

“아이들 교육 지탱하는 버팀목은 선생님”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도교육청 제1회 추경안 심사
“작년 본예산 심의서 타 부지 물색 등 취지 유보금 증액”
“교육청 긴축 예산 편성 밝혔지만 방만한 운영” 지적도

제주도교육청이 지난해 12월 새해 본예산 심사에서 종합교육지원센터 건물·부지 취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부결에 따른 내부유보금 171억원을 부족한 자원 확보를 취지로 2023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것을 두고 제주도의회에서 질타가 이어졌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2일 제416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이 문제를 따지며 도의회와 집행부의 협치 실종 등을 지적했다.

이날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도의원들이 숙고해서

171억원을 내부유보금으로 뒀는데 추경안을 보니 그것이 없어졌다. 5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며 그 배경을 추궁했다. 김창식(교육의원, 제주시 서부) 교육위원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절박함과 긴박함 때문에 내부유보금으로 났었다. 그때 부대 의견으로 특수 아동들을 위해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했는데 실행이 안 된 것이다”라고 했다.

이에 오순문 부교육감이 “유보금으로는 아무 것도 못한다. 교육청 평가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답변하

자 김 위원장은 “그 이론이 맞다면 왜 그때는 기금으로 두자고 하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동홍동)은 내부유보금 삭감을 두고 “뒤통수를 맞았다”는 발언을 했다.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용담1동·용담2동)은 “내부유보금이 오는 12월 말까지는 유효하지 않나. 아예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1년 안에 다른 방안을 찾아서 다시 공유재산 심의안을 올리라는 취지였다”고 했다.

앞서 첫 절의에 나선 오승식 교육의원(서귀포시 동부)은 도교육청이 1회 추경안을 두고 “긴축 예산”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방만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것 같으며 정부의 보통교부금 감액 교부로 본예산 대비 약 238억 정도 줄어든 상황에서

학교 관련 김광수 교육감의 공약 실현에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오 의원은 “올해 추진하는 12건의 영역 중에도 8건이 학교와 기관 관련 내용으로 이들 영역이 마무리되면 정책 추진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느냐”며 “태스크포스라도 구성해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연구해야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날 도교육청의 제1회 추경안과 함께 제주영지학교 교사동 증축 등 5건의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23년도 제1회 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의한 교육위원회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15일 예정된 2차 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이진경



김승범



고경은



오상혁

제주도교육청이 제42회 스승의 날인 15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기념행사를 연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개최되는 것이다.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시작되는 기념행사는 ‘내 인생의 빛, 내 마음의 별, 그 이름은 선생님’이란 주제 아래 마련된다. 스승 존경 풍토를 조성하고 학교 현장 교원의 사기를 높인다는 취지로 축하 공연과 기념식으로 꾸며진다.

축하 공연은 제주도립 제주합창단, 함덕고 현악양상블이 맡는다. 기념식에서는 교육공로자 표창, 도관도관중창단의 축하 공연, ‘스승의 은혜’ 노래 제창 등이 잇따른다. 행사장에는 스승의 날 기념 공모전 입상작 전시와 함께 다도 코너, 제주영지학교 카페도 운영된다.

올해 교육공로자 표창자는 총 132명에 이른다. 홍조근정훈장 삼성초등학교 이진경 교장, 대통령표

창 남원중학교 김승범 교사, 국무총리표창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고경은 교사와 제주도교육청 오상혁 장학관이다. 또한 교육부장관 표창은 광곡초등학교 김효정 교사 등 46명이 받는다. 교육감 표창은 서귀포산업과학고 안연진 교사 등 82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중 정부 포상은 교육부 주관으로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전수될 예정이다.

김광수 교육감은 스승의 날을 앞두고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띄운 메시지를 통해 “선생님들에 대한 위상과 역할이 예전과 같지 않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은 선생님이었다”고 격려했다.

그리면서 “학생들과 눈을 맞추며, 꿈과 미래를 같이 고민하고, 제자들 곁에서 언제나 든든한 힘이 되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여전히 교육의 미래는 밝고 희망차다”고 강조했다. 전선희기자

상습 무전취식 50대 송치

무전취식으로 형을 살고 출소한 다음날 또다시 무전취식을 한 5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시부경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7일부터 최근까지 8차례에 걸쳐 술 값을 내지 않는 등 무전취식해 28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일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도주 우려 등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전취식으로 징역을 살다 지난 3월 20일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도영기자



‘제주 100인의 아빠단’ 5기 출범

지난 13일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시리우스호텔에서 열린 ‘제주 100인의 아빠단’ 5기 발대식에 참여한 아빠들이 “많은 육아미션 활동에 참여해 자녀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제주 100인의 아빠단’은 놀이, 교육, 일상, 건강, 관계 등 5개 분야 육아미션을 1주일 동안 아이와 함께 수행하고 공식 커뮤니티에 공유할 예정이다. 이상국기자

이날 13일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시리우스호텔에서 열린 ‘제주 100인의 아빠단’ 5기 발대식에 참여한 아빠들이 “많은 육아미션 활동에 참여해 자녀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제주 100인의 아빠단’은 놀이, 교육, 일상, 건강, 관계 등 5개 분야 육아미션을 1주일 동안 아이와 함께 수행하고 공식 커뮤니티에 공유할 예정이다. 이상국기자

오늘부터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

최근 2년 도내 이륜차 사고 830건... 38%가 5~8월 발생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제주지역 이륜차 교통사고가 집중하는 시기를 맞아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2년(2021~2022년) 사이 발생한 도내 이륜차 교통사고 건수는 모두 830건으로, 이 가운데 317건(38%)이 5

~8월에 발생했다. 또 이륜차 교통사고 사상자 40%는 5~8월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주간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 활동과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이 기간 행정시, 제주자치도자치경찰단,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불법 구조 변

경, 번호판 미부착 등도 단속한다.

경찰은 다음달 중 후면 번호판 무인 단속 장비를 구축해 이륜차 신호 위반·과속 행위를 적발한다.

경찰은 특히 교통법규 위반과 사고가 잦은 신광사거리, 연동사거리, 서귀포 중앙로터리, 남녕교사거리 등 10곳에서 상시 단속 체계를 꾸릴 예정이다. 이상민기자

큰 가로수 뽑고 어린 묘목 심는다고?

기후위기 제주행동 ‘서광로 버스중앙차로’ 사업 비판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지난 12일 논평을 발표하고 “제주도는 제주시 서광로 버스중앙차로 사업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도 축소 없다는 오영훈 지사 약속에 따라 뽑아낸 가로수를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주행동은 “지난해 12월 제주시 서광로 일대에 버스중앙차로를 개설한다며 인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가로수들이 대거 뽑히는 일이 있었다”며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오영훈 도지사는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고 양문형 버스 도입 등 도로 확장 없이 버스중앙차로

개설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서광로의 가로수가 뽑힌 자리에 작은 묘목이 심어졌다”며 “담당 부서에 사업 진행에 대해 문의하니 ‘논의 중으로 추후 발표한다’는 답답한 답변만 들었다”고 덧붙였다.

제주행동은 “사업 중단 4개월이 지났지만 서광로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 과정도 부재하고 이후 계획조차 시민들은 알 수 없으며 나무가 뽑힌 자리에 어린 나무가 심어지는 광경은 사업에 대한 의구심만 키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도영기자

허가번호 18-제주2022-20-03

감귤묘목

유라조생	2~3년생
천혜향	3~5년생
황금향	3~5년생
한라봉엠	3~6년생
남진해	3~4년생
성전온주	3년생
하례조생	3년생
탈라봉	3년생
윈터프린스	3년생
감평	3년생
진지향	3년생
탱자묘	1년생

한림종묘사

010-8820-5769
종자관리사 010-3690-2453

감귤 신품종 분양

2023년 봄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 천혜향(특호), 황금향, 윈터프린스, 한라봉, 사라향(천혜향신품종), 탐나는봉, 카라향, 탐빛1호, 맹유자, 아마나스, 레몬, 탱자(1년생 300원, 2년생 400원)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오하라배니(궁천번이)

[유라,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2년생 분양 1만원 특별분양 선착순]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요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큰도로변)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대표 : 010-2691-1883
(관리자 : 010-9480-1564)

모든품종

감귤(묘)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 18-2002-20-07호

유라조생 1~3년생
하례조생 1~4년생
궁천 1~4년생
레드향 1~5년생

- 사라향
- 윈터프린스
- 카라향
- 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 (화분)
- 일남일호
- 유라(1~5년생)
- 탐나는봉
- 황금향
- 천혜향

※ 신품종 다수보유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묘목

유라조생	2,3년생	한라봉	2,3년생
유라실생		황금향	2년생
궁천	3,5년생	하례조생	4년생
레드향	2,3,5년생	레몬	4년생
천혜향	2년생	탱자묘목	2년생
하귤	4,5년생	그외 다수 품종	

최대규모 · 최고경력 · 건설육묘 35년

석파농산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18-2003-20-08

☎010-2699-2355